

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		
배 포 일	2020. 3. 26. / (총 6매)			
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접촉자관리단 역학조사팀	팀 장	박 영 준	전 화	043-719-9364
	담 당 자	김 화 미		043-719-9386

운동시설을 통한 코로나19 집단발병 조사결과 중간 발표

- ◇ 충남 천안에서 시작된 유행이 전국 5개 시·도(천안, 아산, 서울, 세종, 대구)로 확산되어 116명 환자가 발생함
- ◇ 좁은 공간 내에서 격한 신체 운동이 침방울(비말)전파를 극대화함으로 다수의 감염자를 양산할 수 있음과 다중이용시설이 지역사회 전파의 진원이 될 수 있음을 확인

- 중앙방역대책본부(본부장 정은경)와 충청남도 방역대책본부(본부장 이정구)는 천안지역 운동시설(줄바댄스)에서 발생 후 전국 5개 시·도로 확산되어 116명 확진자가 발생하였던 코로나19 집단발병 중간 역학조사를 완료하였고, 이에 대한 역학적 중간 분석결과를 발표*하였다.

* 주간 「건강과 질병」 제13권 제13호('20.3.26 발간) 게재

- 이번 운동시설 집단감염은 '20.2.24일(월)부터 천안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것을 바탕으로, 이 중 증상발생 시점이 유사한 3명의 감염경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운동시설을 유일한 공동노출 장소로 확인하면서 집단감염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.
- 환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평균 연령은 39.1세, 여성이 75%(87명)로
 - 거주지는 충남이 103명(88.8%; 천안 95명, 아산 8명), 세종(6.9%, 8명), 대구(1.7%, 2명), 경기(1.7%, 2명), 서울(0.9%, 1명)의 순으로 환자가 발생하였고

- 환자 구성은 강사가 8명(6.9%), 수강생 57명(49.1%), 강사 및 수강생의 가족 및 지인 등 51명(44.1%)이었다.
- 초기 조사서를 바탕으로 한 충청남도 권역 101명의 확진 당시 증상에서 발열 또는 발열감이 20.8%(21명), 기침 20.8%(21명), 인후통 17.8%(18명), 근육통 13.9%(14명) 순으로 많았고 무증상도 24.8%(25명)로 나타났다(중복 응답).
- 전파경로 분석 결과, 환자들의 증상발생일은 20.2.18일에서 3.12일로 강사(2.18~2.24)에서 수강생(2.20~3.9), 수강생에서 기타 가족 및 지인(2.22~3.12)으로 전파하였으며,
- 2020년 2월 15일 '전국댄스강사공동연수(워크숍)'이 공동폭로요인*임을 확인하였으나, 관련 선행 감염원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재 추가 조사 중**이다.
- * 참석 강사 전원에게 대한 검사에서 27명 중 8명(충남 5, 서울 1, 세종 1, 대구 1) 확진
- ** 대구에서 온 강사는 있었으나 증상이 워크숍 이후 발생하여 선행 감염원으로서의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
- 추가전파는 확진된 강사 8명 중 5명에서 4차 전파까지 나타났고, 그 외 강사 3명으로 인한 2차 전파는 없었다.

	총(명)	강사	2차 전파	3차 전파	4차 전파
계	116	8	67	32	9
강사 1	30	1	22	6	1
강사 2	54	1	29	19	5
강사 3	12	1	8	3	-
강사 4	1	1	-	-	-
강사 5	2	1	1	-	-
강사 6	8	1	4	2	1
강사 7	1	1	-	-	-
강사 8	1	1	-	-	-
강사1, 3 강습 시설§	7	-	3	2	2

* 운동시설 외 가족, 지인 포함하여 전파 세대기별로 구분함

§ 강사 1과 3이 강습했던 시설에서 수강생은 아니나 이용객 중 발생한 사례

○ 본 조사결과는 현재까지 진행된 역학조사 결과에 기반 한 것으로 추후 조사에 따라 분석결과는 변동 가능하다.

□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“제한된 공간 내에서 춤바댄스와 같이 격한 신체운동이 일상 접촉에 비해 다수에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고 지역사회 내 가족과 지인으로까지 전파가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,

○ 당분간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이는 운동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피할 것을 당부“하였다.

<붙임> 운동시설 이용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중간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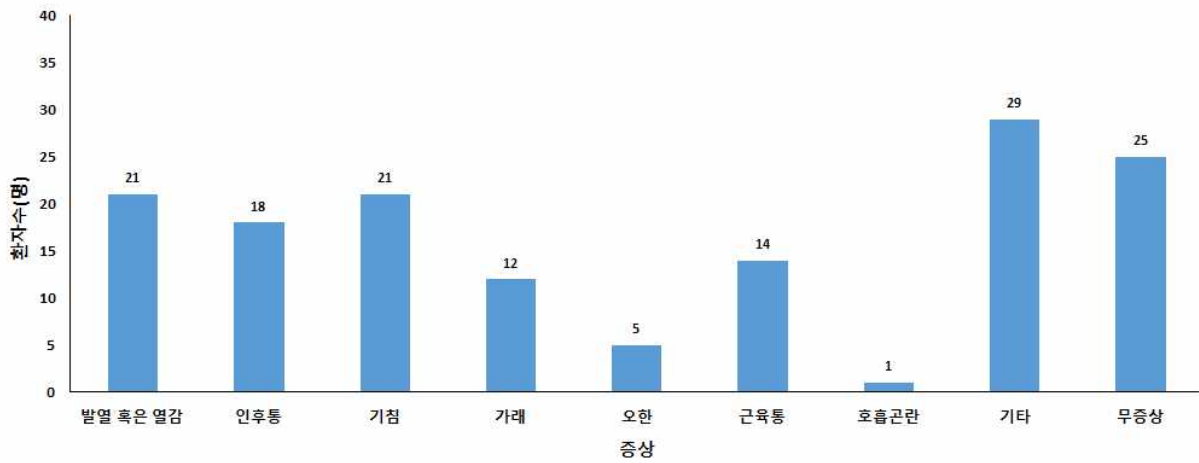
붙임

운동시설 이용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중간 결과

○ 확진자의 일반적 특성(116명)

특성		환자수(명)	백분율(%)
성별	남성	29	25.0
	여성	87	75.0
연령	10세 미만	5	4.3
	10대	10	8.6
	20대	11	9.5
	30대	23	19.8
	40대	44	37.9
	50대	14	12.1
	60대 이상	9	7.8
	평균±표준편차	39.1±15.13 (중앙값 42.0)	
거주지	천안	95	81.9
	아산	8	6.9
	세종	8	6.9
	대구	2	1.7
	경기	2	1.7
	서울	1	0.9
감염경로	줌바댄스 강습 (강사 8, 수강생 57)	65	56.0
	가족	37	31.9
	동료	4	3.4
	지인	3	2.6
	기타	7	6.0

○ 확진자의 초기 증상(101명)



* 초기 조사서를 바탕으로 한 확진 당시 충청남도 권역 101명의 증상 기준

* 중복 응답가능

○ 감염확산 관계도

